



전주대 보육기업 '창업 릴레이' 발전기금 기탁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선배 창업 기업이 후배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 릴레이' 기부를 통해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인 (주)이노컨(박찬 대표)가 후배 창업가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내놓은 것. 박찬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는 바쁜 상황 속에서 후배 창업가들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이 기금은 교내 창업발전을 물론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대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에 전주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육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전주대 창업보육센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산업교육 재할치로 세미나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최근 도내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산업체 재직자교육 재할치로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직자 교육은 LINC 3.0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체 수요 맞춤형 재직자의 직무역량 고도화를 목표로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대한한자세 운동과학회(KAPMS)가 주도해 총 4회에 걸쳐 2개의 트랙으로 진행했다.

사업단은 대한한자세운동과학회와 도내 물리치료 업체 관계자들이 평일근무로 인해 교육 참가가 어려운 근무조건을 고려해 주말 교육을 진행했다.

전현철 물리치료학과장은 "산업체 재직자교육을 통해 도내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교육과 같이 지역 산업체들과 대학간의 공유협업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승훈 단장은 "100시간 공유협업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체 재직자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재직자 교육을 지원해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초등돌봄전담사 심폐소생술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30일 남원교육지원청 별관 2층에서 초등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등돌봄전담사의 특성에 맞는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119신고요령, 어린이 안전사고와 응급처치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론 및 마네킹과 실습도구를 통해 직접 실습하면서 실제상황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교육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응급처치 등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기공명의학 기술 분야 성장 기대'

전주대 방사선학과 강태석·조영현씨 9월 SCI 논문 공저자로 게재

전주대학교 방사선학과 강태석·조영현 학생(4년제)이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JMRI)에 공저자로 9월 게재된다고 30일 밝혔다.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는 국제 저널로서, 자기공명을 포함한 자기물리영역에서 국제적 공신력이 높은 저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대 대학생들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뇌의 특정 영역(뇌 섬엽)에서 뇌 대사물질의 변화를 규명하고, 뇌 구역별 연결성을 기능자기공명영상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흡연과 관련된 중독연구로서 대학생의 입장에서 실험적인 접근과 흡연 치료에 대한 정량화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승만 지도교수는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두 학생은 연구자적인 자질과 지식 탐구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아 자기공명의학 기술 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된다"며, "전주대학교 방사선학과에서 인재가 탄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 방사선학과는 도내 유일한 학과(4년제)로서 보건 의료 특성학과로서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해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의료방사선 및 방사선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30일 AI뉴테크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현철 지청장을 비롯해 신현호 청년드림팀장, 정상모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조속진 대외협력보좌관, 박심훈 취업지원처장 김미선 교육실장, 김현식 교수, 김영민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일자리 발굴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장년고용정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의 정책 홍보 △대학생들의 직업 진로지도 및 고용관련 교육 등 취업과 연계된 제반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현철 지청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0-2021년 전국 전문대 취업률 위라는 전주비전대학교의 취업경쟁력은 국내대 중 '탑클래스'임을 인문보도를 통해 악히 잘 알고 있다"면서 "정상모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학생 취업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고용노동부도 전주비전대



와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상모 총장은 "산학협약과 학생들의 취업지도 및 고용관련 교육 등에 열의를 갖고 참석해 줘 감사드린다"면서 "고용노동부 전북지청과 함께 전북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기계공고 프레쉬봉사단, 8년간 봉사활동 이어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 8명으로 이루어진 프레쉬 봉사단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 참혜원(이하 참혜원)과 인연을 시작으로 8년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프레쉬 봉사단은 단원들의 재능기부를 시작으로 물놀이, 여행 체육활동, 그림 그리기 등 이용인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여 참혜원 이용인들과 함께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또한 매년 추석이 되면 직접 송편 재료를 준비하여 이용인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고 식사시간에 배식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활동이 주춤하였지만 2022년 7월 익산 CITY 투어를 시작으로 봉사활동을 재개하여 오는 9월 3일 이용인들과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영수 프레쉬 봉사단장은 "본인을 비롯하여 장년퇴임을



한 교직원이 3명 있지만 프레쉬 봉사단과 함께 계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참혜원 이용인들을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다시 활동을 시작하며 이용인과 함께 활동할 날들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 부림식재, 도동동에 쌀 100포 전달

남원시 도봉동(동장 정남훈)은 추석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관내 부림식재(대표 정영국)에서 지난 30일 추석을 맞이하여 도봉동행정복지센터로 백미 10kg 100포(환가액 200만원 상당)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부림식재는 수년째 지속적으로 도동동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기탁된 물품은 도봉동 1일 1기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방문가구 및 저소득계층에 전달 될 예정이다.

정영국 대표는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하는 추석이 누군가에게는 의료유일 수 있다며, 작은 보탬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남훈 동장은 "갑작스러운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부림식재에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승훈 무주 강산대표, 이웃사랑 물품 기탁

무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승훈 대표가 30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물품을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유한회사 강산 이승훈 대표는 무주군을 찾아 황인홍 군수에게 75만 원(쌀 10kg 300포(555만 원), 김 300봉(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도록 작으나마 정성을 보낸다"며 "무주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오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사정도 어려우실텐데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기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추석 명절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수해복구현장서 구슬땀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지난 27일 고산면 지역의 한 장애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남용 의장이 찾은 곳은 집중호우로 주택 입구의 석축이 무너진 현장으로 그곳에는 장애인 노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축공사로 출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추가 붕괴의 위험까지 있어 완주한마음봉사단에서 긴급 복구 봉사활동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완주한마음봉사단 소결영 회장의 회원 17여명이 함께했으며, 기존에 돌로 쌓여 있던 석축을 콘크리트 석축으로 교체했다.

서남용 의장은 "지난 집중호우로 불안한 석축을 지날 때마다 노심초사하던 노부부가 이제는 마음 놓고 집으로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봉사활동에 힘을 모아 주신 소원섭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구슬땀을 흘려 주신 완주한마음봉사단 소결영 회장님과 회원께 깊은 감사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순창군자봉센터, 행복가득 방구석 콘서트 열려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삼순)는 30일 풍산면 죽전마을과 동계면 이등마을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팔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복가득(孝孝)사랑 방구석 미니콘서트'를 통해 생신잔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연 6회 칠순, 팔순 구수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활동은 풍산면 죽전마을 팔순 어르신 3명을 모시고 열렸다.

또한 30일에는 동계면 이등마을을 찾아 팔순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눔봉사단(회장 김숙자)과 함께 직접 음식(미역국, 부침개, 찜채 등)을 만들고 그 외 케이크, 상차림, 과일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의 생신상과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인한 소독용품(마스크, 손소독제, 화장지 등) 등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를 통한 장구춤, 민요 등 미니콘서트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잔치음식은 모두 조리하여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나눠드리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를 통한 미니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삼순 소장은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음식과 흥겨운 공연을 통해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품에 꼭 맞춘 것처럼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사랑나눔 이웃돕기 행사 실시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와 함께 30일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부안군내 부안읍에 위치한 한부모(부)다자녀 가정인 신주철 씨 가정에 찾아가 임직원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각종 생필품과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부안군산림조합 오세준조합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든 명절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산림조합, 조합원과 임직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 협동조합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 지원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